

[**KNSi** 현안진단 25호]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홍미정 (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

- I. 영국이 한 입으로 세 가지 약속을 하다.
- II. 1947년 유엔 총회 결의 181호, 이스라엘 국가 건설, 이스라엘/아랍 전쟁
- III. 이스라엘의 ‘부재자 재산법’ 과 ‘귀환법’
- IV. 1967년 전쟁과 안보리 결의 242호
- V. PLO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요구
- VI. 이스라엘/이집트 캠프데이비드 협정과 국경획정,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요구 무산
- VII.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협정과 국경획정
- VIII. 이스라엘/PLO 협상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립
- IX. 점령지에서 검문소, 관통도로, 분리장벽 건설
- X. 2006년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부 수립
- XI.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안

* 2005년 이스라엘 국가 영역과 점령지

팔레스타인 지역(26,323km ²)	이스라엘(78%)		이스라엘 정착촌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점령지(22%)	가자: 365km ² 서안+동예루살렘: 5,655km ²	

* 인구 : 2005년 9월 현재 (단위: 명)

이스라엘인	606만	이스라엘 국내 563만	유대인: 437만 아랍인: 126만
		점령지 43만	동 예루살렘: 20만 서안: 23만
팔레스타인인	약 850만	점령지 내부 403만	가자: 130만(2004년 유엔 등록 난민: 938,531) 동 예루살렘: 23만 서안: 250만(2004년 유엔 등록 난민: 675,670)
		점령지 외부 450-480만	450-480만 (2004년 유엔 총 등록 난민: 2,572,510; 그 중 요르단: 1,758,274; 시리아: 417,346; 레바논: 396,890)

2006년 팔레스타인 제2차 의회 선거가 있었다. 1996년에는 1차 자치정부 의회 선거를 거부했던 이슬람주의자 정당인 하마스가 2006년 의회 선거에 참가하면서 132 석(지역구 66 석, 전국구 66 석) 중 총 74 석을 장악하면서 선거 돌풍을 일으켰다. 74 석 중 45 석이 지역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마스는 가자 지역에서 24 석 중 15 석을 확보함으로써 62.5%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서안에서 하마스는 42 석 중 30 석을 획득함으로써 71%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왜 1996년 의회 선거에서 전체 의회 의석인 88 석 모두를 장악했던 파타는 이번 선거에서 132 석 중 단지 45 석(지역구 17석-25.7%, 전국구 28석-42.4%)만을 획득하는 참패를 당했는가? 지역구에서 파타는 기독교도 할당 5 석을 제외한다면, 가자지역에서 6 석, 즉 26% 정도 의석과, 서안에서 6 석, 즉 16%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파타는 지역구에서 전체 66 석 중 17 석을 얻었으나 이 중 5 석은 기독교도에게 할당된 의석이었다. 결국 기독교인들을 제외한다면, 지역구에서 파타는 고작 12 석만을 획득하였다.

1988년 하마스 헌장은 이스라엘 국가 영역을 포함한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민족국가 건설을 그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 1월 의회 선거 직후 하마스 최고지도자 칼리드 마샤은 현재 이스라엘 국가 영역을 제외한 1967년 전쟁에서 점령당한 영토인 전 팔레스타인의 22%,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과 가자 지역에서 국가 건설을 선언하였다.

하마스는 2006년 3월 20일 정부 구성을 공식적으로 완료하였으며, 25명의 정부 각료 중 관광장관을 제외한 모든 인사들은 하마스 소속이다. 2003년 미국이 중재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협상 문서인 로드맵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목하면서 파타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하마스를 포함한 테러리스트 단체들을 해체한 이후에야 다음 단계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협상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파타의 자치정부를 반대하면서 하마스를 선택하였다.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은 1월 선거이후 팔레스타인에 대한 모든 경제 지원을 중단하면서 하마스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선거 이전에 하마스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을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엽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이스라엘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들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이 분쟁은 1948년 이스라엘 국가 건설과 함께 장기화되었고, 1967년 전쟁을 통해 격화되었다. 1차 팔레스타인 민중봉기 진행 중에 시작된 1990년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협상은 힘의 균형 관계가 협상 문서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협상 결과는 더욱 정교하고 강화된 이스라엘 점령 정책의 표현이었다. 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협상의 끝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아니라 제2차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였고, 이 봉기의 끝자락에서 이슬람주의자 하마스 정부가 수립되었다.

I. 영국이 한 입으로 세 가지 약속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이 분쟁은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20세기 초에 영국은 자국의 최대 상품시장이었던 인도로 가는 통상로를 확보하고, 아라비아반도에 진입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세 가지 충돌되는 약속을 하였다. 첫째 1915년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아랍 독립을 지지한다고 후세인-맥마흔 서신을 통하여 아랍의 지도자인 후세인에게 약속하였다. 이것은 오스만 터키를 물리치는 데에 아랍인들의 군사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1916년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와 체결한 사이크스-피코 비밀협정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공동 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럽 열강들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유럽에서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관문으로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양보하지 않았다. 셋째 1917년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인 민족 고향 건설’에 호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영국의 유대인 전략은 유대인 국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던 시오니스트들을 영국 제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동맹으로 간주한 결과였다. 벨푸어 선언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시오니즘을 비현실적인 꿈으로부터 성취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형시켰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위임 통치가 시작되었고, 유럽과 러시아 등지로부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대거 이주하였다.

II. 1947년 유엔 총회 결의 181호, 이스라엘 국가 건설, 이스라엘/아랍 전쟁

영국의 위임 통치 종결을 6개월 앞둔 1947년 11월 유엔 팔레스타인분할안이 의결된 이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은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 분할안은 유엔 총회 결의 181호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56.47%를 유대 국가에, 42.88%를 아랍 국가에, 예루살렘 국제지구로 0.65%를 할당하였다. 그러나 당시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87.5%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유대인들은 6.6%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9%는 영국 소유였다. 당연하게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유엔 분할안을 거부한 반면, 유대인들을 이를 받아들여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였다. 다음날인 15일 미국이, 18일에는 소련이 이스라엘 국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반면 15일 이집트, 트랜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국가 창설 선언에 반대하였다. 이들 아랍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1948년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78%를 장악하였으며, 나머지 22% 중 가자는 이집트, 서안과 동 예루살렘은 요르단의 통치하에 1967년 6월 4일까지 놓여 있었다.

Ⅲ. 이스라엘의 ‘부재자 재산법’ 과 ‘귀환법’

이 전쟁 중에 90% 정도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변 아랍 국가 등으로 피난하였다. 1950년 이스라엘은 ‘부재자 재산법’ 을 만들어 피난한 아랍인들의 토지를 몰수하였으며 동시에 피난민들이 귀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라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의결된 날인 1947년 11월 2일 현재 아랍 국가의 시민이었거나 아랍 국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거주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거주지를 떠나있던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부재자로 분류되었다. 이 때 부재자의 재산은 점유자에게 귀속되며, 당시 재산 점유자들은 전 재산을 이스라엘 정부에 팔았다. 이로써 이스라엘 정부는 손쉽게 100만 아랍인의 재산 강탈을 제도화하였다.

반면 ‘부재자 재산법’ 을 채택한지 3 개월이 채 안된 7월 이스라엘 의회는 ‘귀환법’ 을 공포하였다. ‘귀환법’ 은 “모든 유대인은 새로운 이주자로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권리를 가지며 완전한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는다.” 고 규정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부재자 재산법’ 과 ‘귀환법’ 의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아랍인들을 추방시키고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었다.

Ⅳ. 1967년 전쟁과 안보리 결의 242호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대상이 되는 영역은 바로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다. 즉 가자와 동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서안 지역인 전 팔레스타인 영역의 22%다. 1967년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하에 들어가면서 국제연합 난민구제사업국에 전쟁 난민으로 등록된 17만 5천 명을 포함하는 43만 4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곳으로부터 강제 퇴거당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요르단으로 이주하였다. 피난 가지 않았던 10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하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967년 8월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서 개최된 아랍 연맹회의는 ‘아랍의 세 가지 NOs, 즉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기 전에는, 이스라엘과는 강화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는다.’ 를 채택하였다. 이 상황에서 열강들은 외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1967년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가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 결의는 1967년 전쟁에서 점령한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철군할 것과, 모든 국가들은 승인된 경계 내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는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현존하는 국가들 사이의 문제해결만을 요구할 뿐이고,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 이외에 팔레스타인 민족국가 건설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족자결권을 무시하고 단순히 난민 문제로만 처리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V. PLO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요구

한편 팔레스타인인들은 1969년 이후 야세르 아라파트가 주도하는 PLO(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에 적극 가담하여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아라파트가 1974년에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하면서 PLO는 팔레스타인의 대표기구로서 유엔총회 결의 3210호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 이 상황에서 1976년 1월 UN 총회는 안보리 결의 242호에 토대를 두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제출하였고 PLO가 지지한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 결의는 유럽, 소련, 이슬람권 국가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 결의가 의미하는 이스라엘과 나란히 공존하는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의 건설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이스라엘에게는 위기 상황이었다.

VI. 이스라엘/이집트 캠프데이비드 협정과 국경획정,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요구 무산

이렇게 미국이 고립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두 국가의 해결책’ 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두 국가’ 요구를 ‘점령지에 자치정부’ 를 세우는 방향으로 선회 시킴으로써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중재로 1978년 9월 1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무함마드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서명함으로써 체결되었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서명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이집트는

매년 20억 달러를, 이스라엘은 매년 28억 달러를 받고 있다.

이 협정이 요구하는 서안과 가자 지역의 자치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 뿐만 아니라 ‘서안과 가자 지역의 이스라엘 정착민들’ 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들 모두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과 함께 최종 지위협상에 참가할 사람들이었다. 이로써 서안과 가자에 대한 최종 지위 협상 이전에 이스라엘이 실행할 목표는 분명해졌다. 그것은 서안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늘리고 조직화해서 최종 지위 협상에서 정착민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었다. 사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이스라엘이 목표했던 것은 당시 국제사회가 요구했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립을 저지하고, 서안과 가자 지역을 이스라엘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이었다.

이 협정에서 이집트는 1967년 전쟁에서 빼앗겼던 시나이를 되돌려 받는 대신에, 자신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요르단 관리하의 서안지역을 이스라엘의 지배권에 묶어두는데 동의한 것이었다. 실제로 캠프 데이비드 협정 조인 6 개월 이후에 체결된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을 이집트와 이전 위임 통치 팔레스타인 영역의 경계라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이집트는 가자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역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구적인 경계는 이집트와 이전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영역 사이의 승인된 국경이다. 양 측은 이 경계를 불가침의 경계로 인정한다. 양 측은 수자원과 영공을 포함하는 상대방의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이집트의 평화 협정에 관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팔레스타인인들의 영토는 없다. 이 협정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두 국가’ 건설 요구는 당분간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가자, 동 예루살렘, 서안 지역으로 이스라엘인들의 이주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토지를 몰수하였다. 이제 서안과 가자 지역에 자치 정부를 세운다면 그것을 주도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착민들인 것처럼 보였다. 이 협정에서 제기된 팔레스타인 자치는 국가로서의 지위와는 거리가 멀었고, 유엔이 인정한 팔레스타인인의 대표 기구인 PLO에게는 어떤 역할도 부여하지 않았다. 물론 PLO는 이 협정을 거부하였다.

VII.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협정과 국경획정

1994년 7월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후세인 요르단 국왕은 윌리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워싱턴 회담에서 양국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각종관계를 개선한다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회담을 후원하면서 미국은 요르단의 7억 달러의 부채 탕감과 군사지원을 약속하였다. 미국은 군사원조 2억불을 포함하여 매년 5억 달러를 원조

하고 있다.

이 워싱턴 선언을 구체화시킨 것이 1994년 10월 26일 이스라엘 정부와 요르단 왕국 사이에 평화 조약이다.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요르단 사이의 국경을 획정하였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국경은 위임 통치하의 경계선이다. 즉 요르단 강과 야르목 강, 사해, 와디 아라바, 아까바 만이다. 이 국경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영구적이고, 안정되고, 승인된 국경이다.” 이 조약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위치하는 팔레스타인 영토는 없다. 오직 이스라엘과 요르단 두 국가만 존재할 뿐이다. 요르단은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안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완전히 승인하였다.

VIII. 이스라엘/PLO 협상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립

캠프데이비드 협정 이후 더욱 강화된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87년 말부터 시작된 1차 팔레스타인 민중봉기로 이스라엘의 억압 정책이 전 세계에 폭로되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때 1988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창설되어 PLO와 쌍벽을 이루면서 대 이스라엘 투쟁을 주도하였다. 1988년 PLO는 동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가자와 서안 지역으로 구성되는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선언하였다. 이렇게 강력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직면한 이스라엘은 이제 PLO와 협상에 나서게 되었다. PLO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1992년 이후 협상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1994년 PLO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와 서안 일부 지역에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역할이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치정부 건설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민족국가 건설 운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1995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무장공격을 중단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잠시 동안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책은 성공한 듯이 보였다.

IX. 점령지에서 검문소, 관통도로, 분리장벽 건설

그런데 이 8 년의 협상 기간 동안 동 예루살렘과 서안에서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두 배 이상 증가해서 40만 명이 넘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상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인들을 점령지로 지속적으로 이주시키는 이중적인 정책을 강행하였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정착촌들과 이스라엘 내부를 잇는 관통 도로들을 건

설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도시와 마을을 산산조각 내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도로 이용을 금지 당했다. 더욱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도시를 잇는 간선도로들 위에는 이스라엘 검문소들이 설치되어 팔레스타인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인들은 각 도시와 마을 단위로 완전히 갇혀 살게 되었으며, 통행 허가를 위해서 중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는 검문소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통행 허가가 나지 않으면 되돌아가야하고, 이스라엘은 수시로 통행금지를 명령한다. 2000년 최종 지위 협상에서 이스라엘은 정착촌 제거, 난민 귀환문제, 동 예루살렘 주권 문제, 1967년 경계 회복 등 팔레스타인 측 요구 사항을 최종적으로 거부하였다. 반면, 이스라엘은 점령지 일부 합병, 수자원 장악, 영공 장악, 팔레스타인 국가의 비무장화, 모든 경계를 완벽히 통제할 권리 등을 주장하였다.

결국 2000년 7월 8년간 지속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협상은 결렬되었고, 자살폭탄공격을 동반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제2차 민중봉기가 발발하였다. 이 민중봉기를 막는다는 구실로 이스라엘은 2002년부터 서안 지역에 총 길이 800km이상 높이 8미터의 콘크리트 분리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장벽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영토를 강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장벽 건설을 통해서 동예루살렘과 서안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은 조상대대로 사용해오던 우물과 농장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면서 자신들의 농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식수조차 부족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물을 사먹어야 하는 형편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과 관련하여 200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인 동 예루살렘, 서안, 가자지역은 국제법을 위반한 점령지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들 지역에 건설한 정착촌도 국제법 위반이다. 이스라엘 분리장벽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장벽 건설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보상을 하고 수용한 토지를 반환해야한다.” 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아랑곳하지 않고 점령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5년 8월 이스라엘은 가자의 정착민 8,000 명을 서안 정착촌 지역으로 대거 이주시켰다. 이 때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철수는 서안 지역을 더욱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967년 전쟁이후 2005년 현재까지 동 예루살렘에 20만 명, 서안에 23만 명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이주해 있으며, 동 예루살렘과 서안 지역 정착촌들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분리 장벽, 도로와 검문소 통제 등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땅과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강탈당하고, 도시와 마을 단위로 갇

혀서 이동을 차단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공세적이고 야만적인 점령정책이 지속되는 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X. 2006년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부 수립

최종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치정부/이스라엘의 협상이 실패하였다고 판단했고, 이스라엘과 협상을 주도한 파타가 팔레스타인 내부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파타 소속의 지식인 관료들은 ‘제3의 길’ 등 새로운 정당을 창설했고, 파타는 선거 이전에 이미 그 내부에서부터 조직이 붕괴되었다. 파타가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은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통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실패와 자치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조직의 와해에 그 원인이 있다.

선거에서 승리한 하마스가 밝힌 협상의 주제는 현 이스라엘 국가 영역을 제외한 1967년 6월 전쟁 이전의 휴전선(1948년 전쟁의 결과 만들어진 휴전선)으로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국경획정, 이스라엘 정착촌의 완전한 철거, 동 예루살렘의 주권 회복, 1948년 점령된 땅(현 이스라엘 국가 영역)으로부터 추방된 난민을 포함하는 500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9천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감옥의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 군의 완전한 철수다. 이것은 이미 2000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최종 지위 협상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이 제시했던 주제들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주제들을 논의하기를 거부하였고,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사실, 이스라엘의 협상 프로그램에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존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1990년대 팔레스타인과 협상을 주도한 대가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노동당 총리 이츠하크 라빈도, 시몬 페레즈조차도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마스가 내세우는 이 주제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하마스 정부는 1967년 이스라엘 점령지 전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22%,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서안과 가자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민족국가를 건설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이 22% 지역에서 철수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XI.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안

이스라엘/이집트의 평화 협정과 이스라엘/요르단 평화 협정은 이스라엘과 두 아랍국가들 사이의 국경을 획정하였다. 이 협정들에서 이집트는 가자를, 요르단은 서안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승인하였다. 이집트와 요르단의 이슬람주의자들은 이 평화 협정들에 반대하면서 강

력한 반정부 세력으로 존재한다. 때문에 이집트와 요르단 정부는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두려워하여 탄압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하마스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집트와 요르단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된다면, 이슬람주의자들이 현 정권들을 교체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이고 전체적인 아랍정부들은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정권인 하마스 정부를 달가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 정권을 탄압하는데 이스라엘과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각국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 세력화는 무시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 과정은 1990년 소련 붕괴이후 사회주의자-아랍민족주의자 진영이 결정적으로 약화되면서 이슬람주의자-아랍민족주의자 대안이 강력하게 출현한 결과다. 현재 아랍 각국 정부의 탄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주의자들은 의회에서 강력한 야당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아랍 정부들뿐만 아니라 제도권에 등장한 이슬람주의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한다.

하마스를 비롯한 이슬람주의자들의 활동은 주로 이슬람 교회, 모스크와 연계된 것이며, 각국 정부가 소홀히 해온 가난한 주민들을 위한 각종 자선활동과 교육에서 활력을 얻어 왔다. 따라서 이들의 지지 토대는 각국의 시민사회에 있고, 세계적인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 등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그 세력을 강화시켜왔다. 우리의 시민 사회가 중동 지역 평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아랍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서구 열강과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방어와 연대의 필요성에서 출현한 세력이며, 각국의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다는 것에 주목하고, 정부 차원과는 다른 영역에서 다양한 관계를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6/03/23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